

臺灣의 경제발전: 중소기업의 역할과 대륙 투자

柳 熙 汶*

- I. 서론
- II. 臺灣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역할
- III. 중소기업 발전과 문화 제도 요인
- IV. 臺灣 중소기업의 대륙투자
- V. 결론

I. 서 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높은 경제성장과 건실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기업문화와 정책제도가 뒷받침되었듯이 대만의 건실한 경제발전에도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발전전략과 적절한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적으로는 전통 儒家倫理의 경제가치관이 경제발전의 일정 역할을 해왔고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순기능 적으로 활용한 점도 있다.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대만은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동양학부 교수

국민당 통치아래 새로운 사회구조를 구축하면서 권위적인 정치제도아래 제도화된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해왔다.

대만은 안정된 경제사회와 높은 경제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강력한 정부주도아래 효율적인 경제발전 전략과 산업 정책을 펼쳐왔으며 특히 민간기업 육성정책도 효과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정부와 기업관계에서도 국민당 통치아래 정부와 기업 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왔고 정부의 권위와 기업의 경영방침은 儒家의 사회적 이념과 民生主義라는 경제이념에 의해 강력하게 지탱되었다.

대만은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네트워크를 살린 이른바 「關係」에 기초한 생산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생산구조의 기업간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대만은 均富와 조화를 앞세운 民生主義 경제제도 아래 중소기업 위주의 생산구조를 운용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시장환경에 유연한 생산구조를 갖게되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대만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도 선봉에 서고 있다. 최근에는 兩岸간(대만-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커지면서 대만의 중소기업의 대륙투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대만 중소기업이 대만의 경제발전에 끼친 영향과 중소기업 발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대륙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최근 투자 형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만 경제발전의 문화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도론적 분석을 통해 대만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양안 경제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민간 중소기업의 대륙투자의

양상과 전략특징을 경영 전략적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대만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역할

대만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물가의 안정과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견실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쟁력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¹⁾ 대만의 고도경제성장에는 무엇보다 수출 확대 정책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원동력을 두고 있다.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1950년대에 10% 이하에 머물렀지만 1960년 이후로 수출증가와 함께 1978년에는 50%이상을 보였다. 수출의 증가는 공업생산을 촉진시키고 제조업중심의 공업부문은 대만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 대만 경제발전의 특징은 세계자유무역의 분위기와 국제분업체제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한 공업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만공업화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전략이고, 제2단계는 1960년대 수출진흥의 공업화 전략이며 제3단계는 1970년 중반이후로 수출공업화를 기반으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1) 1986-97년 기간중 대만경제는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확대된 가운데서도 98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했으며 세계경제논단(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도 세계4위를 기록했다. 中華民國臺灣地區統計月報(1999년 1월)와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8-1999.

나타난다. 제4단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하이테크산업의 육성시기로 나눌 수 있다.

대만의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국제가공기지로서의 민간 중소기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분업 체제아래 공업화 과정을 성공시킨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이 가능한 요인으로는 노동집약산업의 특화, 일본과 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즉, 대만은 국내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의 노동집약상품을 생산하고 일본, 미국 등의 다국적기업을 이용한 국제분업체제를 활용하여 수출지향 공업화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국제분업 체제아래 수출주도형 기업의 침범은 무엇보다 민간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은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산업의 발전에 따라 성장하다가 수출지향공업화의 주역으로 되었다. 국내시장을 국민당 정권의 공기업이 장악한 상태에서 민간기업의 활로는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은 1952년 전 산업의 56.6%를 차지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은 공기업의 독점체제로 되어 있었다. 민간기업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기업 수는 제조업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생산액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960년부터 정부의 수입대체산업, 수출진흥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1996년에는 민간기업의 공업생산비중이 91.6%를 보이는 등 공기업과의 비중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98년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30%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 취업인구의 78%를 담당하는 경제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대만의 경제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中華民國八十八年中小企業白皮書, 1999년).

<표 1>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비중(%)

년도 \ 기업	全 產 業		製 造 業	
	公 企 業	民 間 企 業	公 企 業	民 間 企 業
1952	56.6	43.4	56.2	43.8
1960	47.9	52.1	43.8	56.2
1970	27.7	72.3	20.6	79.4
1980	18.7	81.3	14.5	85.5
1990	16.8	83.2	10.6	89.4
1996	15.6	84.4	8.4	91.6

자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1998).

渡辺利夫·加藤弘之, “圖說中國經濟”, 日本評論社, 1999. p.117.

公기업이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의 중소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아래 성장했다. 공기업이 안정적인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엄격한 경쟁의 수출시장 진출로 발전하여 수출 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전환됐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통 儒家문화 영향아래 가족경영의 성

격을 갖고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나설 수 있었다.²⁾ 여기에 외국자본과 제휴하여 국제하청업자로서 多種의 少量生産등으로 상품의 차별화된 생산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갔다. 이런 점이 대만경제와 수출산업에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대만 중소기업의 발전은 대만사회의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과 소득의 균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중소기업의 발전에는 경제외적인 전통 유가문화 요인아래 정부의 경제발전전략과 시장 제도에 힘입었다고 본다.

Ⅲ. 중소기업 발전과 문화 제도적 요인

1. 중소기업 발전의 전통 儒家문화 요인

대만의 경제발전에서 민간 중소기업의 발전배경에는 대만의 民生主義관 경제이념과 전통 儒家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철학이 있다.

중국의 전통 경제문화의 핵심은 “富는 民에서 나오고 民이 富해야 국가가 강해진다”(藏富於民, 民富國強)라는 경제철학

2) 대만을 비롯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전통유가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는 아래 문헌을 참고.

Tai Hung-chao(1989), *Confucia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n Oriental Alternative?*, The Washington Institute Press.

Tu Weiming(1996),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Harvard Univ. Press.

Wei Wou(1992), *Capitalism: A Chinese Version*, Ohio State Univ. Press.

에서 비롯된다. “藏富於民, 民富國強”의 경제관은 중국경제사상의 父로 칭하는 管子의 핵심사상이다. 管子는 정부사업과 민간경제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藏富於民”의 경제철학은 儒家사상과 法家の 경제이념을 포용하여 자유경제기반 아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경제부문을 중요시한다. “藏富於民”의 경제철학과 전통儒家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孫文의 民生主義며 바로 대만의 경제이념이다.³⁾

民生主義란 臺灣의 國父로 일컬어지는 孫文의 경제철학으로써 “養民, 均富, 自由, 調和”의 원칙아래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앞세운 경제이념이다. 자본과 기업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자본의 절제를 통한 대재벌의 억제, 私有와 公有의 병존, 民營과 公營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다.

전통 儒家문화의 調和정신은 대만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蔣經國 前 총통의 경제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蔣총통의 경제정책은 제도 면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 발전전략에서 성장과 안정의 조화, 소득분배에 있어 均富의 추구, 민영부문을 보완하는 국영사업의 발전,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조화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있다.⁴⁾

전통 儒家의 調和정신과 孫文의 경제이념은 특히 대만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조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고 전통유가의 가족관념은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3) 魏蓴, 『民生主義經濟學』, 臺灣中央文物供應社, 1981, pp. 61-73.

4) 林蔭庭, 「李煥與蔣經國先生(追隨半世紀)」, 『臺灣天下文化』, 1998, pp. 21-42.

공영기업은 대만경제의 기초산업과 민간 중소기업이 맡기에
는 부담스러운 경제영역을 맡는 등 민간기업과의 역할분담을
해왔다. 민간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수입대
체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하게되었다. 조화와 민생주의 均富
관념은 기업경영과 안정적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와 기업은 이런 정신을 강조하고 교육시켜 안정적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대만시장은 사회내부에 학연, 혈연, 지연 등의 緣故主義가
특징으로 나타나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있지만 대만특
유의 '關係網'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을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關係網'아래 기업내 업무
분담과 단결은 전통 儒家五倫정신에 입각한 조화와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집약형 산업이 발
전하게된 儒家倫理 요인으로서는 敬業정신과 근검절약(勤苦節
儉)의 가치관⁵⁾을 들 수 있다. 儒家의 敬業정신은 노동자의 근
면성실과 작업에 대한 열의성을 가져왔다. 대만 경제발전 초
기에 나타난 수입대체적 노동집약산업에서의 발전은 무엇보다
다 저렴한 노동자의 근면성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은 대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만은 경제발전 초기에 토지개혁을 실시

5)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문화적 측면에서 論語 學而篇의 “敬事而信,
節用而愛人”과 “食無求飽, 居無求安”의 節用思想이 동아시아 국
가의 저축을 높인 儒家문화 요인으로 보고있다. 주성환(1999)의
글, pp.1-32 참조.

하여 지주의 농업자본을 공업자본으로 끌어들이어 공업화의 자본축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또 강력한 정부의 주도아래 수입대체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소비재산업을 육성했다. 이와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진흥에도 성공했다. 정부는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의 중심을 자본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하는데도 성공했다.

정부의 지도력 배경에는 우수한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업, 국민들의 협력조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우수한 관료에 대한 선발은 科擧制度로부터 비롯된 儒家문화권의 특징이다. 대만정부의 행정조직에는 考試院을 별도로 두어 인재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儒家윤리의 '三綱五倫'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국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질서와 조화의 중시라는 가치관에서 형성된다. 질서와 조화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기업, 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 조화를 이루게 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역할분담 이라는 것도 이러한 儒家倫理의 조화가치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儒家倫理의 가치관은 사회의 윤리와 관습에 영향을 주고 사회제도의 틀을 형성하는 문화이다. 儒家는 그 자체만으로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발전에 영향을 준다. 儒家倫理는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할 때 儒家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반

대로 정부가 경제발전을 저해할 때 儒家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儒家倫理는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儒家倫理의 양면성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儒家의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 경제발전에 대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오랜 논쟁도 나타나고 있다.

즉, 儒家倫理의 가치관에는 경제발전의 순기능 역할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부정적 요인에는 유가문화의 世俗化에도 그 원인이 있다. 세속화된 유가문화는 정치적으로 전통유가의 본질개념을 왜곡시켜 경제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士農工商’의 신분 서열화와 朱子學의 ‘重義輕利’사상은 자본주의적 경제사고(商人精神)를 억제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계층을 무시했다. 상업과정에서 나타난 이윤획득을 정당치 못한 것으로 보고 企業家 정신을 약화시켰다.

또 “군자는 義를 중요시하고 小人은 利를 탐한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는 뜻도 사회 역할 분담의 뜻을 정치적으로 왜곡시킨 유가의 세속화된 경제문화 요인이다. 그 본 뜻은 “정부관리는 사회정의의 책임지고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의 역할이 사회정의 추구하고 국가 봉사에 있고 일반 국민은 노동을 통해 재부를 쌓아 경제에 공헌한다는 정부와 국민사이의 역할 분담에 있다. 이같이 세속화된 사상과 관념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진정한 儒家의 경제관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한 儒家의 조화정신과 사회질서관도 기술과 자본밀집형 산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발전, 전통적 가족산업의 현대화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儒家倫理의 가치관은 발전전략과 제도적 요인의 결합과정에서 양면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경제 제도적 요인이 경제발전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소기업 발전의 정책 제도적 요인

대만 중소기업 발전의 정책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먼저 대만 경제발전의 전략적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제발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시기는 1970년 이전의 시기로 경제정책의 중점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개선에 두고 국제경제관계의 강화에 두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70년 이후에는 급격한 외부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⁶⁾

경제발전 초기(1949-60년 기간)의 정책은 공업발전을 지원하는 농업의 육성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대체전략에 중심을 두었다. 특히 대만의 농업은 초기의 농지개혁에 힘입어 그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공업투자의 원시적 축적재원을 형성하게 했다. 대만은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제1-2차 4개년 계획(1953-60년)기간 중에 경제성장률(GDP)이 6.9%에 달했으며 농업생산량의 5%를 수출하여 자급자족과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또 일본통치시기에 이루어진 산업투자와 공업시설도 공업기반의 구성에 도움이 됐다.

농업부문의 축적을 통해 공업부문의 투자재원과 경제발전

6) 魏萼, 『中國式資本主義』, 臺灣三民書局, 1993, pp. 6-10.

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정부의 독점과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었다. 1-2차 4개년 경제 계획은 농업의 발전과 노동집약적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의 창출과 수출증가, 그리고 국제수지개선에 힘을 쏟았다. 수입대체산업의 전반적인 목적은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외화의 절약, 소비재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있다. 국내시장이 수입대체산업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1960년 이후에는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와 보조금 정책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공간을 키워나갔다. 또 해외자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정책도 실시했으며 수출확대를 위해 특별산업 공단과 자유무역 지역을 설치했다. “投資獎勵條例”(1960년)를 공포하여 국내외 자본이 주요 수출산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民生主義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여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왔다. 즉, 정부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私企業을 지원했다. 이로부터 민간 중소기업의 영역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은 대만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⁷⁾ 수출확대정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육성을 이끌어냈다. 신규 공업투자에 민간자본을 끌어오고 화교자본의 투자가 대만의 수출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자본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1970년대의 경제정책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도로, 항

7) 臺灣經濟建設委員會, 『臺灣統計資料 1990』, pp.86-89.

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고 둘째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육성한다는 산업정책의 조정이다. 1976년부터 “경제건설 6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계획기간 중 총투자액의 48%를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나머지 52%는 중화학공업에 투자하였다. 정치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국제수지의 흑자 등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주고 조세 및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구했다. 또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지의 개량, 농업기계화의 가속화를 시도했다. 1980년대 후반 계엄시기가 해제되면서 대만경제의 국제화와 자유화가 급속히 전개되었다. 친지방문허용(探親)정책에 따라 중국대륙과의 인적 및 경제교류도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륙투자도 급속히 전개되었다.

대만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대만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경쟁의 자유시장(free market)제도를 받아들인 점이다.⁸⁾ 대만은 1960년 이후 경제개혁과 수출확대정책에 착수하여 특정산업의 육성보다는 시장경제 제도에 기초한 기업환경의 조성에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특정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稅制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간접통제 방식을 채택했다. 시장기능에 맡긴 기업정책을 실시하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실행되지 않았고 기업의 進出入도 시장경제에 맡겼다. 민간기업은 시장수요에 따라 수익성을 기준으로 進出업종을

8) 朱星煥, 「韓國과 臺灣의 經濟發展戰略比較分析」, 2000, pp. 97-125.

선택했다. 시장경쟁으로 경제효율성이 추구되어 기업의 존립은 자기책임아래 결정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때도 대만은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따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대만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에는 시장 지향적 금융정책과 금융구조의 건전성에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정책은 시장기능과 은행의 자율성에 따라 움직이고 정부의 특혜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무리한 자금조달보다는 친지나 가족구성원 등 은행외적인 부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성향이 있다.⁹⁾ 대만은 고금리정책을 추진하여 실질금리를 보장하고 자본축적을 제고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대만은 화교자본과 외자를 도입하여 국내산업의 육성과 자본을 축적한 후 자본축적 범위 내에서의 해외투자도 이루어져왔다. 대만의 건전한 금융구조는 민간기업의 외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 중소기업 발전에는 공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독특한 특징에 있다. 대만정부의 공영사업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민생과 직결된 독점적 사업은 정부가 맡는다. 2)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 3)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고 할 능력은 있으나 원치

9) 대만의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 외적인 2개 부문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한다. 한 부문은 기존사업에서 축적된 이윤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다른 한 부문은 場外시장 즉,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Semkow, B.W., *Taiwan's Capital-Market Reform: The Finance and Legal Issues*, Oxford Univ. Press, 1994.

않는 사업, 4)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고 할 능력도 있으며 원하는 사업이나 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업 등 이 4가지 사업이 공영기업이 맡아야 할 사업이고 민간기업과의 역할 분담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기업의 역량이 커지고 위의 4가지에 대한 공영기업의 역할이 완수되면 공영사업의 경제영역을 민간기업에 돌린다는 대원칙이다. 즉, 공영기업과 국영기업은 무엇보다 민간경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민간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¹⁰⁾

예를 들어 1953년부터 대만의 4대 公營기업인-臺灣시멘트, 臺灣農林, 臺灣工礦, 臺灣製紙 등이 민영으로 돌아섰고 1998년 2월에는 臺灣彰化은행, 華南은행, 第一은행, 臺灣產物保險회사, 臺灣企業은행 등 5개 공영사업이 민영으로 돌아섰다. 이는 대만의 경제발전전략이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개방경제에 기반을 둔 “藏富於民” 경제발전의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수출촉진 정책과 함께 성장한 대만의 민간기업 집단은 수평적 통합체로서 수출상품 생산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민간기업 집단은 다른 대기업집단과는 경제적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들과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대만의 기업집단은 규모가 작고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기업집단은 최종 수출품을 수출하지 않고 중간재를 대량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간재를 바탕으로

10) 魏蓁, 『中國國富論』, 臺灣時報出版社, 2000, pp. 429-430.

국내의 주문을 받아 최종재를 생산 수출하는 생산구조의 특징을 띤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국내외 주문에 맞춰 생산조직의 크기를 조절한다. 또 많은 중소기업과 하청계약을 발전시키고 있어 기업간 유동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세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특유의 '關係網'을 통해서 생산공정의 한 부문만을 맡아 생산하고 미완성의 제품을 다른 생산공정의 소기업에 넘기는 하청 생산구조의 특징을 띠고 있다.¹¹⁾ 즉, 生産工程의 分業化와 外部化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대만의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분업화를 통해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집단이 생산하는 중간재의 주요시장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공정에 있어 대기업과의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한다.

대만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제도아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히 1991년 2월에 시행된 신 조례에는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금융, 경영관리, 생산 및 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 공업안전, 오염방지, 마케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는 중소기업은행과 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지원은 중국생산성본부, 기술지원은 공업기술연구원, 마케팅은 대외무역진흥회 등이 연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11) 대만 중소기업의 하청생산구조에 대해서는 임석준, 「사양산업을 구제할 수 있을까-대만의 하청 생산연결망이 주는 교훈」, pp. 331-356 참고.

IV. 대만 중소기업의 대륙투자 유형과 특징

대만의 중소기업은 수입대체 정책과 수출촉진정책과 더불어 성장했다. 섬경제(海島경제)의 특징을 갖는 대만의 경제발전전략도 수출과 개방경제, 그리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중요시 해왔다. 세계13대 무역국인 대만의 무역은 세계시장의 동향에 따라 움직여왔다. 1950-70년대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일본이었고, 1970-90년대의 중점은 미국이었으며 1990이후에는 무역과 투자의 중심이 중국대륙으로 이전되었다. 즉, 국제경제권의 방향에서는 일본경제권, 미국경제권에서 현재의 중화경제권으로 이동되고 있다.

양안경제관계는 1987년 대만의 대륙친지방문 허용이후로 본격적인 발전에서 90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중국통계에 의하면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90년의 2억 달러에서 97년에 33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양안간의 수출입도 홍콩 경유를 포함하여 90년의 40억 달러에서 97년의 115억 달러로 크게 신장했다. 대만의 對대륙 수출의존도는 1997년 18.4%에 달했다.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도 크게 늘어 91-98년 5월말 기준으로 대만의 중국투자건수는 21,274건에 투자 누계 액이 122억 달러에 달하며 해외 투자액 가운데 대중국 투자가 43%를 차지해 중국은 대만의 가장 큰 해외 투자 지역으로 올라섰다.¹²⁾ 이처럼 양안경제관계가 90년들어 크게 확대된 것은 대만의

12) 臺灣 國際貿易局 統計(1998), “兩岸經貿關係與現況”.

임금상승, 산업기반의 취약성, 내외환경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경공업위주의 대만 중소기업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을 착게 뒀고 중국이 해외이전의 거점으로 매력을 갖고 또 지리적 민족적 문화적 유사성이 크게 작용했다.

대만의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듯이 1)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2) 언어·문화면의 유사성과 동질성, 3)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공장부지 취득의 용이성, 4) 원자재 공급처와 내수 시장 진출의 용이성, 5) 최혜국대우와 투자우대조치, 6) 유희설비의 이용, 7) 해외수입처의 요구 수요, 8) 기업경영 위협의 분산 등이 대륙투자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중국 당국도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 조치를 마련하고 각 省들도 경쟁적으로 대만 기업 유치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해협을 통한 자본이동은 대만의 산업무역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만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은 제조업 비중을 축소시켜 무역구조에서 대미의존도를 대중의존도로 변화시켰다.

대만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은 섬유, 신발, 식품가공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집중되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자, 컴퓨터 등 기술집약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중국이전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제조업비중을 87년의 38.4%에서 97년 30.4%로 하락시켰다.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만기업의 중국공장을 위한 수출품목으로 전기기계설비와 부품, 원재료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

어 대중국 수출품가운데 1998년 1-6월중의 전기기계설비 부품의 수출비중은 30.2%에 달했다. 이는 한편으로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의 축소와 무역마찰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인 증대와 함께 투자 업종 및 규모, 지역 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 업종에 있어 대부분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 의한 섬유 신발 완구류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계 전자, 석유 화학, 에너지 개발 등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대자본 투자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행정 규제를 펼치고 있다. 이같은 행정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투자 지역도 대도시 및 내륙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¹³⁾

대만 기업인의 투자 지역 다변화로 투자 기업의 생산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92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위주의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신발,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93년 이후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활 소비 제품, 음식점 체인, 관광 등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소비 제품 생산에 역점을 둔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다.¹⁴⁾

13)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다변화와 대형화에는 대만기업의 국제화에도 관련이 있다. 대만정부는 대륙투자에 금지항목, 허가항목, 특별항목을 두고 중국투자 한도액을 건당 5천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만 대기업의 해외지사를 통한 자본유출과 대형투자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Tse-Kang Leng(1998), "Dynamics of Taiwan-Mainland China Economic Relations: The Role of Private Firms", *Asian Survey*, Vol 38, No.5, pp. 494-510.

그러나 대만중소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여전히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주로 광둥과 강소, 복건성 등지에 전체 투자비중의 약 3/4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남부 연해지역에 진출한 대만의 중소기업은 기타 외국기업에 비해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아래 5가지의 독특한 특징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1)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기업의 현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동문 동향 同宗 등의 類似 가족관계를 이용한 산업관계망을 중요시한다. 생산구조에 있어 대만의 모기업과 대륙의 자기업이란 수직적 생산체계로부터 탈피하여 기업의 대륙 現地化로 나가고 있다. 즉, 중심공장(모기업)과 위성공장(자기업)의 체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진출 대만기업의 공장체계가 대만의 중심공장과 대륙의 위성공장 또는 하청공장 체계로 구성되어 왔으나 대륙의 투자여건의 변화로 중심공장마저 대륙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본시설의 개선,

14) 대만 대기업 집단은 93년 이후로 내륙 주요 도시에서 중국의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스포츠용품, 신발, 의류 종류를 생산하는 등 내륙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amon H. Myers & Linda Chao(1994),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iwan", *Issues & Studies*, Taipei, December 1994, pp.98-108 참조.

15) 1991-1999년 기간중 대만기업의 누계 투자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둥성 34.6%, 강소성 31.9%, 복건성 10.8%, 하북성 6.0%, 절강 4.5%, 산둥 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중 이들 연해지역의 투자비중도 전체 투자의 91.7%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각년호 참고.

내수시장의 발전, 관련산업의 발전 등은 기업의 현지화를 재촉하고 있다.

2) 대만의 중소기업은 관련산업 공업단지내의 밀집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련산업의 공업단지 밀집은 중소기업의 운송비 절감, 상호간의 협조용이 등으로 공업단지 내에 밀집되어 하나의 생산체계를 형성한다.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공장설립과 투자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업단지내의 기업들은 개별기업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나 산업망으로 볼 때는 하나의 완벽한 생산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둥성과 복건성에 있는 대만투자자의 '신발공업단지', '방직공업단지', '전자공업단지'를 비롯하여 연해도시의 대만투자공업단지 등은 관련 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 종합상사,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집단과의 수평적 결합관계를 갖고 집단핵심기업의 주문생산을 받아 자체의 독립된 생산체계아래 위탁생산을 한다.

3) 산업망 결합형의 상회조직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망 결합형의 기업집단조직이란 관련기업의 연합회 또는 상회, 연합조직의 합작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의 합작과 공동발전의 공간을 키워나가고 있다. 상회조직의 약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상회조직의 결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¹⁶⁾ 대만 기업들은 공업단지 내에 밀집해있으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인 힘을 조직해왔다. 1996년 말까지, 대륙에는 43개의 "대만기업상회(Taiwan

16)李宗哲, 「大陸投資與中小企業發展」, 「經濟前瞻」64号, 臺灣中華經濟研究院, 1999년 7월, PP. 82-87.

Business Association)”가 성행하고 있었다. 중국 廣東省 東莞市 대만기업연합회의 경우 1993년 불과 360개의 회사로 구성되었지만, 1996년 말 회원 기업수가 1,403개로 늘어났다. 연합회의 주된 목적은 대만 기업가들의 “법적 권리와 생활을 보호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대만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회들간에 수평적인 연계를 구성하는 것과 이익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은 중앙 당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승인을 받지 못했다.

4)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지역사회 친화형의 형태를 발전시키고 있다. 대만 중소기업들은 점차 대륙의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복건성의 경우 대만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복건성 해외투자 유치액 가운데 대만의 투자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과 稅收면에서도 대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대륙 지역경제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다. 같은 문화, 인종, 언어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연대감은 대만기업인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관심사에 더 쉽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 30,0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집약적 대만투자기업들이 지방에서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수백만 개에 달한다. 어떤 대만 공장들은 다양한 지방으로부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제조, 여가 심지어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만의 투자는 단지 대륙에 자본과 기술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중국 연해지방의 번영과 연결지어 사회적 네트

워크를 형성해오고 있다.

대만 기업체들은 또한 대륙 지방정부와의 공존 모델을 형성해왔다. 대만의 투자는 지방의 번영에 공헌하여 지방정부의 권력을 상승시켰다. 대륙의 지방정부는 필요한 서비스를 대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의회와 지방정부 산하에 각 도시는 대만전담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다른 도시의 대만전담 부서와 긴밀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기업들은 그들의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방 관료들과 좋은 '關係'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6) 다국적기업과의 연대기업의 형태를 취해나가고 있다. 대만 중소기업의 중국투자는 중국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관련되어 전환기에 있다. 1994년이후로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은 지역중심의 "장소지향적"에서 "산업지향적"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겨냥한 우대조치들은 점차 인프라 건설 개발, 생화학분야, 전자산업과 같은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체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대륙의 비교우위가 아니다. 금융, 무역, 보험과 같은 서비스산업분야에선 유럽, 미국, 일본 회사들이 특히 환영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대만기업들이 수행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다국적기업들의 거대한 압력 하에 두었다. 대만의 기업들은 그들이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부문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대신, 중국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회사들과 "전략적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대기업(joint venture)들은 위탁가공 수출품을 위한 근거지로서 대륙

을 이용하기보다는 대륙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연대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였고, 대만의 파트너들을 통해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언어적 장점을 이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륙시장 진입을 위해 다국적 기업은 대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홍콩 또는 대만에 소위 중국진출 거점의 “대 중국 센터(Greater China Centers)”를 설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만기업의 내수지향 투자전략과도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경영전략의 최근 특징이다.

V. 결론

대만경제발전에서 민간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은 크다. 대만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의 성공요인은 ‘문화’와 ‘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요인으로는 “藏富於民”의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통儒家사상의 가치관을 들 수 있고 이를 이어 받은 民生主義 경제철학과 “均富, 자본의 節制, 公營과 民營의 조화”등을 들 수 있다. 대만은 民生主義 경제이념아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여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제도요인으로는 정부의 적절한 경제발전전략과 자유시장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입대체와 수출주도형의 경제전략은 자유시장 제도아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활동과 생존 공간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대만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추진과정에서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비료 등의 기

간산업은 公營기업이 담당하고, 관련 衛星공업은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대만의 민간기업은 자본집약적인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수평적 연결관계를 유지해왔다. 중소기업들간에 대립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만의 대기업인 기업집단은 주로 중간재를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과 해외주문을 받아 최종소비재를 생산하여 수출해왔다. 중소기업들은 주문에 따라 생산조직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연관기업과 하청계약을 발전시켜온 생산구조의 특징으로 띠어왔다.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특징은 대륙투자의 형태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기업의 현지화, 산업단지내의 생산공정의 협력화, 그리고 산업관계망의 형성과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네트워크의 형성 등은 다른 외국기업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이자 대만기업의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연대기업의 형태는 대만 중소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선택은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특성이 외주발주형의 투자에서 내수판매 위주의 확장형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대만의 민간기업은 대만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투자 확대에 따른 중국 지역발전에도 공헌하는 등 지역사회 친화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대만 민간기업의 대륙투자는

중화경제권 형성의 주축으로서 나아가 양안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와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임석준, 「사양산업을 구제할 수 있을까-대만의 하청 생산연결망이 주는 교훈」, 『東北亞經濟研究』(12-1호), 2000, pp.331-356.
- 주성환,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儒敎文化」, 『東北亞經濟研究』(11-1호), 1999, pp.1-32.
- , 「한국과 臺灣의 經濟發展戰略比較分析」, 『東北亞經濟研究』(11-2호), 2000, pp. 97-125.
- 魏蓁, 「民生主義經濟學」, 臺灣中央文物供應社, 1981.
- , 「中國國富論」, 臺灣時報出版社, 2000.
- 魏蓁·林隆士, 「臺灣的企業與經濟」, 臺灣正中書局, 1988.
- 李宗哲, 「大陸投資與中小企業發展」, 『經濟前瞻』64号, 臺灣中華經濟研究院, 1999, pp. 82-87.
- 林蔭庭, 「李煥與蔣經國先生(追隨半世紀)」, 『臺灣天下文化』, 1998, pp. 21-42.
- 臺灣經濟建設委員會, 「灣統計資料 1990」, pp. 86-89.
- 渡辺利夫·加藤弘之, 「圖說中國經濟」, 日本評論社, 1999.
- Ramon H. Myers & Linda Chao,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iwan", *Issues & Studies*, Taipei, December, 1994, pp.98-108.
- Semkow, B.W., *Taiwan's Capital-Market Reform : The Finance and Legal Issues*, Oxford Univ. Press, 1994.
- Tai Hung-chao, *The Confucia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n Oriental Alternative?*, Washington Institute Press, 1989.

Tu Weiming,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Harvard Univ. Press, 1996.

Tse-Kang Leng(1988), "Dynamics of Taiwan-Mainland China
Economic Relations: The Role of Private Firms", *Asian
Survey*, Vol 38, No.5, 1988, pp. 494-510.

Wei Wou, *Capitalism : A Chinese Version*, Ohio State Univ.
Press, 1992.